

고전음악의 이해 과제

2016025041 소프트웨어전공 하태성

1. 전통적 교향곡과 다른점

- 먼저 <교향곡 제 9번>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여러가지 새로운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표준 교향곡에서 제 3악장에 있어야할 스케르초가 제 2악장에 들어있습니다. 그 대신 원래 제 2악장에 있어야할 아다지오 몰토에 칸타빌레가 제 3악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바꾼 것은 제 4악장을 좀 더 돋보이도록 하기위해 순서를 바꿔 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제 4악장에 제 1, 2, 3악장의 주요 주제를 다시 재현하는 것도 당시 표준 교향곡과는 다른, 쉽게 볼 수 없는 파괴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교향곡 제 9번>을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 앞의 3개 악장은 제 4악장의 전제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악장을 보면 음악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앞의 악장들을 총괄하는 새로운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악장에서 기대감을 불러오는 공허한 시작 방법과 충실하고 장대한 코다, 제 2악장에서 스케르초에서의 소나타 형식과 푸가토를 혼용하는 대규모 구성법, 제 3악장에서 두 개의 주제를 지닌 변주곡이면서 자유롭게 정돈된 방법, 제 4악장에서 변주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형식은 그때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특징입니다. 악기편성에서도 그전의 교향곡보다 수준이 높으며, 타악기 종류도 늘어나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이 음악이 표현하려는 아이디어

-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땐 베토벤이 작곡에만 수십년이 걸리고 청력 손실과 여러 문제가 겹쳐 명예도 잃고 힘들었을 시기에 완성한 곡이라는 내용이 수십줄씩 써져있었습니다. 제가 이 음악을 들을 때 그런 감정이나 배경은 잘 모르겠고 가장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는 협력, 통합과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귀에 익숙한 주제 선율이 처음에는 악기 하나로 정말 소곤소곤하게 시작해서 악기가 하나씩 더해지고 선율이 더해지면서 성악도 더해지고 마지막에 합창까지 더해지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악의 가사에서도 다같이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밖에 계속 주제를 변주해가면서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성악, 합창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것들 들으며 베토벤이 이 곡을 완성하고 느꼈을, 관객들이 이 곡을 처음 듣고서 느꼈을, 베토벤이 이 곡을 귀가 안들리는 상태에서 처음 공연하고 뒤돌아서 관객을 보며 느꼈을, 환희, 기쁨, 열정 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정보를 찾아보니 이 곡이 환희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갈등을 극복하고 인류의 화해를 시도하는 희망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말이 잘 맞는,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